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1월16일 주일 설교입니다.

## <기쁨과 기도, 그리고 감사>

살전5:16-18 / 새찬송가 590 (통일 309) 논발에 오곡백과

### 1. 항상 기뻐합시다

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,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대하여 기뻐해야 합니다. 또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좋으심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(시103:8-11). 또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대하여 기뻐합시다(시100:1-3).

하나님의 좋으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좋으심입니다. 그러나 피조물의 좋은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기에 우리에게 실망과 환멸과 아쉬움과 미련과 슬픔과 허무만 남깁니다(전2:10,11). 더불어 세상의 나쁜 것들을 없애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피조물의 좋은 것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허무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좋으심은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막아주십니다(시62:6,7). 다윗은 이 좋으심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(시23:4).

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심을 인해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.

### 2.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

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뤄지게 합니다. 그래서 모든 기도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받든, 당장 받든, 먼 훗날에 받든 다 응답 받습니다.

기도응답을 통해 우리는 변하고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됩니다. 더불어 하나님도 사랑의 기쁨 즉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니다. 즉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기뻐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합니다.

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사람은 피조물로 인해 파멸하지 않습니다. 다 피조물이어서 존재의 등급이 같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창조주이신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파멸하게 됩니다.

### 3. 범사에 감사합시다

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리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때, 나쁜 때, 평안할 때, 괴로울 때, 건강할 때, 병들었을 때, 부활의 때, 가난할 때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.

이를 위해 감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(골3:15). 그러면 골라가면서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며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평강과 건강과 형통과 부요와 축복이 가득하게 됩니다(마7:17,18).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삶에 나쁜 열매 즉 저주 악독 질병 가난 고난이 가득합니다.

평소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는 내 존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

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찬송과 함께 합니다(시100:4,5). 즉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(시148:1-14).

#### < 적용 & 실천 >

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?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고 내 존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좋은 나쁜든 감사하며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.